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Loving Mind Enriches the World

불기 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일시 : 불기 2560년 5월 14일(토) ● 장소 : 대적광전

제1부 오전 10시

- 타종
 - 개회
 - 집회가
 - 삼귀의
 - 찬불가(보현행원)
 - 육법공양
 - 찬탄 경문 낭독
 - 봉축사
 - 축사
 - 청법가
 - 입정
- 봉축법문
 - 봉축시
 - 봉축가
 - 발원문
 - 어린이 발원문
 - 안내말씀 및 내빈소개
 - 공지사향
 - 사홍서원
 - 산회가
 - 관불의식

제2부 오후 2시~4시

- 축하한마당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6. 5 | Vol. 262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천하제일 설법도량 법왕사 제31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4월 15일부터 제31회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봉행하고 있습니다. 회향일은 6월 2일 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백고좌백일기도 : 10만원
- 영가기도 : 1위 5천원
- 영가접수받습니다(1위 5천원)
- 매주 목요일재일

기도

이 재 4월 28일(음. 3월 22일)
삼 재 5월 5일(음. 3월 29일)
사 재 5월 12일(음. 4월 6일)
오 재 5월 19일(음. 4월 13일)
육 재 5월 26일(음. 4월 20일)
막 재 6월 2일(음. 4월 27일)
※(매주 목요일 재일)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Vol. 262호



- 04 깨침의 향기
아름다운 노후는 용심(用心)에 있다 · 원공당 정무 대총사
- 06 비슬산방
인공지능의 시대에 다시금 종교를 생각한다(2)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인과법칙이 정신세계의 근간 · 본원스님
- 12 기획특집
스님 성정 빌려 도침지 속 형상 찾네
- 16 부처님 이야기 | 초기원형불교 자료에 근거(15)
빠두뭇따라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20 편역과 주련
동화사의 금당선원과 옹호문 · 전일주
- 24 특집 |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 연다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게시판
- 33 해오름소식
- 34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journal.kr | 발행일_불기 2560(서기 2016)년 05월 01일 발행 | 통권_262호 | 종무소_Γ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성해, 상철,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후는 용심(用心)에 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노인 6계명 중에 세번째는 '시비를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늙으면 뭐든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비위가 뒤뜰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식과 정보가 쌓인 데다 경험도 많다보니 젊은이들이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 시비하면 안 됩니다. 하키야 어디 노인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버림받는 것은 시비로 말미암은 게 많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평가하고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시비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식이라도 자꾸 책망하면 떠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늙으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 젊어서 출세한 유명 인사들, 스타들 있잖아요. 실력도 있고 평생 남을 지시하고 충고하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늙어서 처참하고 외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참선하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늙어서 괴각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혼자 밖에 못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수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백두산 꼭대기에 서 바위덩이 하나가 압록강 두만강 천리를 내려가서 마지막에는 자갈돌이 되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닦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중생들이 쉬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십년 수행했어도 그냥 삐죽삐죽 빨난 것 같다

해서 괴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산속에서만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심(修心)보다 용심(用心)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잘 써야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 비난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밤에 친구끼리 만나서 밤새 재미있게 하는 것이 됩니까? 주로 남 비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보면 시비 선수가 되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넷째, 늙어서 낙상하면 큰일 납니다. 안 넘어지게 조심해야 합니다. 시비를 잘 하면 낙상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기브스하고 일년을 가도 안 붙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노인들은 낙상을 대비해서 둔부충격 완화장비를 하나씩 차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검진하지 마세요. 검진하려면 며칠 굶어야 하고 피 빼야 하고 또 조사하다가 몇 달, 몇 년을 탕진하는 겁니다. 늙으면 건강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러저럭 사는 게 좋습니다.

리어카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10년, 20년을 끌고 다녔는지 만신창이가 되어있는데도 안 때우는 겁니다. 아예 때울 데가 없어요. 새끼로 묶어서 그러저럭 다니는 겁니다. 그걸

때우고 고치기로 하면 내버려야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여섯째, 큰 돈 갖지 마세요. 왜, 큰 돈을 가지면 안되는가? 큰 돈을 가지면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늙은 것도 보기 싫는데 교만까지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큰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침꾼들만 옆에 따라 붙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이 노인 6계명을 명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쇠로 인한 뇌의 퇴행(退行) 변화 때문에 지능이 저하되는 정신병인 노인성 치매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20%나 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노인성 치매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치매 걸린 부인을 시중들던 남편이 부인과 함께 비관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노후 준비에 치매대책은 꼭 세워야 합니다.

원공당 정무대중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다시금 종교를 생각한다(2)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지금까지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을 아울러 보면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기초부터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변화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혁명적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류는 비켜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변화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인격이 있다면 인공지능에게도 그에 대응하는 추상적 실체가 존재할까?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현재의 문명을 이룩하였듯이 인공지능도 자체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그들만의 세계와 문명을 건설할까?

만약 그렇게 할 수 있고, 인류의 간섭을 배제한 채 그들만의 문명이 세워진다면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묵시록적 결말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그들

의 문명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체계와 의식, 제도 등을 갖게 될까 하는 의문도 동시에 듭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오직 이성적 사고와 초월적 사유를 하는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는 침팬지를 비롯한 영장류의 동물들은 대뇌의 도구적 기능은 인간과 질적 차이는 없다고 보이지만 상징과 언어를 다루는 분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상징체계인 종교적 사고와 체험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연 피조물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인정받는 종교적 사유와 체험이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현재로서는 선불리 재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인간의 통제하에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야 하며 오직 인간을 보조하며 인간의 활동을 도와주며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류는 장차 그들의 도움으로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들이 알아갈 일 자리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자신들만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정의하고 유지,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인간성'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뜻하는 인간성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랑, 배려, 감사와 같이 지성만으로 구성할 수 없는 따뜻한 감성의 속성과 자비, 희생처럼 숭고한 종교적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치는 오직 인간만이 지닐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세계와 인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근본개념들은 인공지능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연기와 인과법칙, 업력과 윤회, 수행과 해탈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인간이나 인공지능이나 바로 그 '지적능력'으로 인해 유사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유의미한 그런 개념들이 인공지능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인과법칙이 정신세계의 근간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고 하는 통설은 그 어떤 고등지식보다도 명백한 이치로써, 이 점, 아이들에게 영·수보다 더 후한 점수를 줘서라도 각인시켜야 하며 ‘맞은 자는 다리 뻗고 편히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해 하며 다리 오므리고 잔다’는 진실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이, 신분상승이 된다며 모두가 좋아라 하는 판·검사, 장·차관이며 출세·성공하는 것보다 자녀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 나온 일일 것이다.

법신론 차원의 힌두교에서는 신(神)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며, 각기 특별한 권능으로서 고유 지배기능을 맡고 있다고 믿는다. 이름하여 창조신 브라만, 중재신 비슈누, 파괴신 시바가 있다.

부단한 창조와 어리석은 파괴가 역사의 흐름일진대 지구촌이 살아있는 한, 코살라국의 패륜아 위두다마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악업, 그 악업을 뒤따르는 쓰라린 과보를 받으면서도 힘겨운 고통의 단서조차 까마득히 모른 채, 그저 산다고 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치려 하지 않는 한, 불타는 괴로

움 또한 언제까지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을 것이다.

핏빛으로 얼룩지며 일상적이 되어버린 테러, 분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는 야만적인 폭력 등 그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더 교활하고 지능적이며 무자비하다. 수법 또한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가난이 죄로, 힘없는 잡범이 저지르는 범법행위는 쉽게 드러나며 알 수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 상류층, 지배계급 및 국가 권력 내지는 부정한 돈과 썩어 얽혀 연

루된 부패 정치인, 독버섯 같은 경제 사범은 다 잡아 밝혀 채널 수도 없고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또한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은 극히 제한적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

과거 열강들의 식민지배는 총칼을 앞세운 힘이, 곧 침략이 묵인되고 용인되어 착취와 수탈이 합법적 수단인 국제 날강도 짓으로 자국의 부를 축적, 살찌우며, 식민지 땅에 남은 거라곤 심각한 자원고갈과 식민지배로 야기된 잔악한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내린 폐단과 악습의 잔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그 후유증은 어김없이 일어나는 끔찍한 내전으로 그로 인한 악순환 - 군사 쿠데타, 빈곤, 질병, 기아상태에서 아직도 대부분 나라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과 다르다고 하지만 다른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양상이지 실체의 본질에선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이다. 오직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관계, 상호 유대관계라는 점에서, 여전히 힘의 논리가 곧 정의로 정당화되어 허다한 국제기구, 국제법은 비동맹국 거수기식 거부권 행사로 합의도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유명무실하며 찬반 대립하는 말씨름 끝에 대충 넘어가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늘날 과대망상이

부추긴 선민의식,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국가들이 호전성을 드러내며 기세를 올리면서 듣기 좋은 민족주의니 국수주의니 하는 색채로 치장하여 허기진 탐욕의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예전보다 뒤쳐지지 않는다.

1992년의 일이다.

북한사회과학원에서 16(전집)권으로 엮어진 『팔만대장경』 해제본을 출판했고 우리나라 불교출판사와 협약을 맺은 뒤 국내에 들여와 별다른 검증없이 불교신문과 방송 매체를 타고 크게 홍보, 광고 선전하면서 시판, 북한의 이례적인 불경간행이라는 점에서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상당한 가격의 도서를 주문했으며 필자도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 흔쾌히 한 질을 구입했다.

그런데 내용을 본즉,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그야말로 ‘빛깔 좋은 개살구’가 되어 순전히 엉터리로 엮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황당함과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낮 뜨거울 만큼 문장의 오류며 오자, 탈자 투성인데다 여기저기 문맥이 끊어지는 등 글의 조잡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부처님 경전을 두고 불경스럽기 짝이 없이 엉망으로 만든 무지한 자들의 소행을 개탄하며 모두가 보다 말고 모처럼 고가에 구입한 책을 폐기처분하다시피 했다. 필자는

하도 어이가 없어 측근 스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식적으로 사찰(관광 선전용)은 있되, 불법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곤 없는 지구 상에서 가장 폐쇄된 인권 사멸 지대인 최악의 범죄국가 북한이다. 그런 암흑의 사회주의 땅에서, 온갖 속박과 얽어매임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유를 궁극으로 한, 해탈을 추구하는 불타사상의 경전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겠는가? 동족 4백만명을 희생시킨 6·25 남침을 두고, 가증스럽게도 미제를 앞세운 북침전쟁이라며 교과서에 실어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고 배운 탓에 다들 그렇게 아는가 하면, 이제는 ‘통일전쟁 준비를 끝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김일성 수령의 유훈에 따라 핵으로서 성전을 치를 것이다’ 하며 갖은 협박과 공갈을 하고 국지적 도발을 일삼으며 수틀리면 위협하고 억지 생트집 잡는데 길들여진 세월 60여년이다.

주체 연호(김일성 생년, 1913년을 기준으로 삼은 북한 달력)를 쓰며, 왕조 세습체제에다 평양 금수산 기슭에 ‘태양 같은 아버지 수령 동지’ 라면서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김 부자 안치)을 궁전처럼 으리으리하게 짓고,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로 부르는데 이 날을 북한 최대 경축일로 만들어 술과

떡이 배급되며 3일을 쉬면서 하해와 같은 성은에 망극해 한다는 북조선이다.

20세기 끝자락, 북한은 전대미문의 대참사를 빚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97년 홍수와 대기근으로 3백만명 아사 추정, 유엔인권보고서)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분단의 비극을 만든 민족사 최대 과수를 신격화·우상화하는 어리석은 죄악에서 비롯된 양화(殃禍)다. 절대 권력을 위해 종교를 아편으로 간주하여 배척하며 정신세계를 부정하는 유물사관에 찌든 듯, 해괴한 주체사상에 중독되고 세뇌돼 버린 호전적 광란의 비이성적 폐쇄사회에서, 불교경전 출판 운운…… 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치에 어긋난 그릇된 일이다” 고 하였다.

연기법칙은 우주만물의 지배원칙

북한사회과학원 학자들이 어설픈 솜씨로 『대장경』을 엮으며 ‘석가족 멸망’의 대목을 두고, 해체본 후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부처라는 이가 자기 나라 망하는 것을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다. ……” 고.

악의 축으로 불리는 저들이 연기의 법칙, 선연과 악연이 가지는 업사상이며 악행이 지은 무서운 인과응보의 필연성에 대해 언

제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겠는가? 한민족사 최대의 인간 백정을 가리켜 태양신, 유일신으로 지극히 받들어 섬기며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관조차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의, 참으로 가소로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인간관계에서 건, 자연의 이치에서 건 내가 건네준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되돌려 받는다든 사실은 종교 진리이기 이전에 누구나 기억하고 새길, 우주만물을 지배하는 섭리이자 원초적 질서다.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고 하는 통설은 그 어떤 고등지식보다도 명백한 이치로써, 이 점, 아이들에게 영·수보다 더 후한 점수를 쥐서라도 각인시켜야 하며 ‘맞은 자는 다리 뻗고 편히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해하며 다리 오므리고 잔다’는 진실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이, 신분상승이 된다며 모두가 좋아라 하는 관·검사, 장·차관이며 출세·성공하는 것보다 자녀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 나온 일일 것이다.

으뜸가는 고학력사회를 자랑하며, 엄청난 공·사교육비 지출 부담에 학부모들은 허리가 휠 정도지만, 정작 인성교육과는 갈수록 멀어져가는 일반적 학교교육에서 드러나는 실태의 한계는 새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

면 등 돌리며, 내 주의 주장과 노선이 다르면 대립·분열의 관계가 형성되고, 내 가치관과 이념이 다르고 소속 집단이 다르면 곧 반대론자가 되어 서로 맞서야 하며, 내 종교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낯선 이방인 취급하듯 하며, 적으로까지 간주하는 편협과 독선에 치우친 배타적 경향의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방식·행위방식으로부터 벗어나, 먼저 교감을 통한 소통과 상호배려, 열린 관용의 자세로써 더불어 사는 공생을 위한 공존의 이익과 상생적 화합을 도모하는 마음씨 따뜻한 ‘인간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스님 성정 빌려 도침지 속 형상 찾네

김호석 화백



◀ 전강 스님 진영. 138×72cm, 종이에 수묵 채색, 2015.

편집자주

현대불교에 연재 중인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의 선지식' 가운데 전강스님 기사를 전재합니다. 전강스님은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의 은사이신 원공당 정무 대종사의 스승으로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스님입니다. 현대불교와 김화백님의 허락을 받아 수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니 불자님들의 많은 열독 바랍니다.

성찰이 필요했다. 선, 명상, 기도 어떤 것이든 공부해서 무아의 단계에 진입해 보기로 했다. 무아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우선 생각을 절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생각을 줄이고 절제하여 더 이상 줄이거나 보낼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면 분별과 차별의 단계가 사라질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했다. 무아는 공부의 출발이었다. 그러면서 극점이었다. 전강 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신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예술 작품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다양한 인식과정을 거친다. 먼저 창작가가 의도하는 이미지가 있고 다음으로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다. 두 사람의 생각과 이미지는 서로 다르다. 그것은 사회 통념을 통해 도달하는 인식과 각자 개인의 선천적인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마다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작품은 해석의 문제이다. 해석은 비울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

작품에 대한 해석은 폭이 넓을수록 좋다. 그럴 때 보편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감염력도 크다. 좋은 작품의 조건들이다. 전강스님을 그리면서 무엇보다 비중을 두어 고려한 것은 스님의 구도 정신이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함을 입었다. 이렇게 맑고 투명하며 바른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이 긍지가 되었다. 내가 본 옛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왜 전강 스님을 우리시대의 대선사라고 칭송하는지 이해가 갔다. 대선사의 풍모가 전체로 느껴지는 순간 먹을 갈았다.

나는 그때 받은 그 느낌을 글로 정리했다. 그런데 어떤 말이나 글이 덧붙여질수록 본질과는 멀어지는 것 같았다. 생각과 글이 달랐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스님에 대한 느낌만큼은 그대로 찾아들었다. 진심이었다. 나는 그 마음만은 먹빛 속이라도 남겨 기록하고 싶었다. 그래서 붓을 들었다.

전강스님의 형용을 분석해 본다. 스님의 일상은 매우 서민적이고 소탈하다. 법상에 올라 설법할 때나 맨땅에 앉아 사람과 대화할 때 스님의 눈에서 내뿜는 빛은 다르지 않

다. 키는 160cm 정도로 작고 체구는 마른 편이 아니다. 옷맵시는 어떤 권위나 허영도 없다.

얼굴을 중심으로 세밀히 살펴보았다. 먼저 얼굴형은 둥글넓적한 계란형이다. 그래서 넉넉한 인상으로 보이지만 단단하다는 느낌도 동시에 다가온다. 머리는 어느 한 곳 죽은 데가 없다. 머리털은 굵고 숏도 빼곡하다. 이마는 넓고 시원하다. 눈썹은 양쪽 모두 끝 부분의 술이 적고 약하다. 그러면서 거의 대칭을 이룬다. 눈은 작고 눈 사이가 벌어져 있다. 동공의 아랫부분이 뚜렷하게 노출되어 있어 깊고 그윽하다. 선정에 든 모습이다. 코는 작고 단단하다. 코 망울은 넓지만 끝에 기운이 집중되어 있다. 대신 콧구멍은 뚜렷하게 보인다. 인중은 길고 넓다.

입은 윗입술이 가늘고 길지만 아랫입술은 두텁고 무겁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살아있다. 입에서 턱까지의 길이는 좁고 턱선은 완만하다. 귀는 대칭으로 컷바퀴가 크다. 수염은 코밑과 턱에 발달해 있다. 그래서 항상 푸르고 검은 잿빛이 감돈다.

스님의 얼굴 형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턱과 입의 형태와 기울기이다. 균형을 깨고 있다. 정수리로부터 턱의 중앙에까지 선을 내려 그어보면 왼쪽 부위가 발달해 있다. 왜곡이다. 나는 이런 부조화를 보면서 그것의 원인으로 스님의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생각했다.

얼굴 골격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턱이다. 위와 아래의 턱이 똑같이 발달하면 족집게 교합이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턱에 틈이 있으면 가위교합이 이루어진다. 이때 불균형이 발생한다. 턱의 변화는 대부분 식사와 잠 습관에 의한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좌우 어느 한쪽으로 음식물을 씹는다. 음식물을 씹는 사소한 습관이 골격에 영향을 미친다. 씹는 버릇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동안 하는 식사의 수를 생각하면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씹는 힘은 강력하다. 어금니에는 최대 60킬로그램의 힘이 작용한다. 나쁜 식습관이 장기간 지속되면 머리뼈는 좌우 불균형이 생성된다. 수면자세도 마찬가지로이다. 인간은 긴 시간 잠을 잔다. 이때 옆으로 누운 자세는 얼굴 한쪽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얼굴의 골격은 변형된다.

아마 스님의 얼굴에서 턱과 입에 부조화가 발생한 것은 이런 습관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인지했다.

스님의 얼굴에서 위로부터 내려 코선까지는 거의 좌우대칭에 가깝다. 그러나 인중을 기점으로 입과 턱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것의 차이는 명암으로 가려져 입체적일 때는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입체를 걷어내고 평면으로 환원시키면 비대칭이 드러난다. 스님의 얼굴에는 특이하게 대칭이 주를

이루지만 하악골을 중심으로는 비대칭이 엄
존한다. 이것은 스님의 얼굴에서 신성한 느
낌과 동시에 자유로운 정서를 느끼게 만드
는 요인이 된다.

나는 이런 부조화와 왜곡을 바로 잡아 그리
려 생각했지만 불균형 또한 스님의 특성으
로 보고자 했다. 그래서 스님 모습 그대로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
는 듯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찰나의 미발 상
태가 느껴졌다. 그림 속 인물은 사진 속에
서 보는 일체의 그림자를 제거했다. 대신 오
악을 기준으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초본이 완성되었다. 그날
작업실에 혜영스님과 보승스님 그리고 전강
스님을 어릴 때 보고 자랐다는 처사가 함께
왔다.

그림을 보고 난 감상은 각자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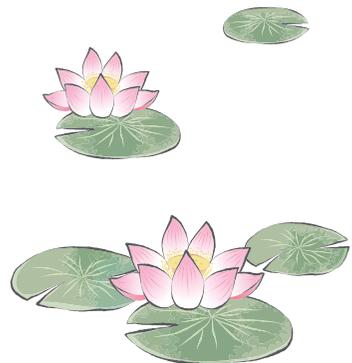
스님의 말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생경하다는 느낌, 스님을 뵈 적 없이 초상화
로만 보았던 분은 너무 젊다는 느낌, 어릴
때 보아온 사람은 벨벳 모자를 씌워야 스님
다운 느낌이 든다는 등 자유롭게 감상평을
했다. 세 사람 모두 전강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나는 그분들이 말한 느낌을 존중한다. 그래
서 정밀한 사진을 구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모습을 그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
라고 주문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해도 우선은 모실 수요자의 입장을 존

중한다. 작업 중인 진영의 이미지가 문중 스
님들께 전해지고 스님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작업실에는 즉시 회의에서 결정된 초
상화 원본이 배달되어 왔다.

발자크는 “표현된 형상은 생각과 감정을 전
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치 광활한 시의 세
계와도 같다. 모든 이미지는 하나의 세계다.
그것은 고귀한 비전을 통해 포착되고 내면
의 성찰을 통해 창조된 후, 최초의 원시적인
표현 수단이었던 천부의 손에 의해 낱알이
해부 되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초상이다”
고 했다.

나는 스님의 성정을 빌려 도침지 속에 감추
어 놓은 형상을 찾고 있다. 붓동은 서 있어
낭창낭창하지만 선은 고요하다. 대신 스님
의 몸에 눌러 그은 철선묘는 붉게 살아 움
직인다.





빠두뭇따라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6년 4월호, vol.261)에서는 보살(수메다)이 나라다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라다 부처님은 두발 가진 중생(인간) 중에서 최고이며,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다. 나라다 부처님은 '마하소나라는 나무 아래에서 금강석과 같은 지혜가 일어나서 모든 번뇌가 제거되고, 완전한 깨달음과 열 네가지 붓다의 지혜를 얻는다. 나라다 부처님은 세번의 통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그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결발 고행수행자였는데, 나라다 부처님과 상가에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단향목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러자 나라다 부처님은 결발 수행자에게 '미래에 고타마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나라다 부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도록 이끈다. 그리고 수닷싸나 도시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n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짜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dipankara)에서부터 시작하여 10번째의 붓다인 빠두뭇따라불(padumuttara-buddha)에게 수기를 받는 내용을 불중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

[불중성경(Buddha-vamsa)_(CST4: KN-Bvm, ch.12, vs.1-31) 의역요약]

1. 빠두뭇따라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 나라다 부처님에 이어서 정등각자이며, 두발 가진 중생들(인간) 가운데서 최고인 빠두뭇따라(padumuttara)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대양처럼 흔들림이 없다. 그 부처님은 만다겹(manḍa-kappa)에 태어나 시는데, 많은 공덕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겹에 태어난다.

[vs. 3-6] 빠두뭇따라 세존께서 첫번째 설법을 하실 때, 10만 꼬띠(약 1조)의 중생들에게 법에 대한 통찰이 있게 된다. 그로부터 다른 때에 [법의] 비를 내려 중생들을 만족 시키는데, [그때] 3백7십만명에게 두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위대한 영웅(빠두뭇따라

부처님)이 [아버지] 이난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근처에 접근한 후에 불사의 복을 두드린다. 불사의 복을 두드리고, 법의 비를 내리자 5백만명에게 세 번째의 통찰이 있게 된다.

[vs. 7] 모든 중생의 충고자이고, 지도자이며, 안내의 별이자, 설법에 능숙한 빠두뭇따라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많은 중생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vs. 8-10] 빠두뭇따라 스승에게는 세계의 모임이 있다. 첫번째 모임은 10만 꼬띠(약 1조)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무등등과 동등한 빠두뭇따라 부처님이 웨바라 산(vebhārapabbata)에서 머무실 때, 9만 꼬띠(9천억)의 사람들로 구성된 두번째 모임이 있게 된다. 다시 계속하여 마을로, 도시로, 국가로 유행을 해가면서 세번째 모임이 있게 되는데, 8만 꼬띠(8천억)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아래 주석 1번 참조]

2. 수기

[vs. 11-] 그때 나(고따마 부처님)는 자뿔라(jaṭila)라는 정부 관리였는데, 나는 정등각자(빠두뭇따라) 붓다를 상수로 하는 상가에게 음식과 찬을 보시한다.

[vs. 12-13] 또한 그 빠두뭇따라 부처님도

상가의 한 가운데에 앉아서 나(정부 관리)에게 수기를 다음과 같이 하신다:

“지금부터 무수한 겁(kappa)이 지난 후 (10만겁 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라 하고, 아버지는 ‘수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나는 고타마(gotama)가 될 것이다. 풀리따(kolita)와 우빠똌뜨사(upatissa)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찌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난다마따(nandamātā)와 웃따라(uttar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타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비할데 없는 위대한 성자(빠두똌따라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 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

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빠두똌따라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빠두똌따라 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래 주석 2번 참조)

[vs. 14] 내가(자필라 관리=미래의 고타마 부처님) 이 소리를 들은 후에, 고원한 결의를 하고, 10바라밀(pa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3. 빠두똌따라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5-16] 모든 외도들의 말에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 하지 않자 누구도 그들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지역에서 축출한다. 그들 모두는 거기에 모여서 부처님 근처에 간 후 [말하길: “위대한 영웅이여, 그대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통찰력을 가진 이여, [우리의] 귀의처가 되어주소서.”] [라고 한다.]

[vs. 17-18] 모든 생명에 자비스럽고, 동정적이며, 유익함을 바라는 빠두똌따라 부처님

은 [거기에] 도착한 모든 외도들을 오계에 확립시킨다. 이와 같이 혼란스럽지 않고, 외도들은 텅 비고, 그것에 통달한 아라한들로 장식된다.

[vs. 19-21]_빠두못따라 스승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항사바띠(hamsavati)이고, 아난다(ānanda)라는 이름의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수자따(sujāta)이다. 그는 1만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나라바하나(naravāhana), 야사(yasa), 와사바띠(vasavatti)' 라는 세개의 뛰어난 궁전이 있다. 4만3천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바수다따(vasudatta)라는 부인과 우따마(uttama)라는 아들이 있다.

[vs. 22-23]_인생의 네가지 특징적인 모습(cattāro nimittā)을 본 후에, 궁전에서 출가한다. 사람 중에 최고인 그 (빠두못따라 부처님)는 7일간 고행을 한다. 범천의 간청이 있자 위대한 지도자인 빠두못따라 부처님, 위대한 영웅은 미틸라(mithila)라는 훌륭한 숲에서 [법의] 바퀴를 굴린다.

[vs. 24-26]_위대한 성자인 빠두못따라 부처님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데발라(devala)와 수자따(sujāta)이고, 시자는 수마나(sumana)이다.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아미따(āmitā)와 아사마

(asam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살라라(salal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비뫼나(vitinna)와 땃사(tissa)이고, 으뜸가는 재가여성신자는 하타(hatthā)와 비찌따(vicitta)이다.

[vs. 27-29]_그 대성자(빠두못따라 부처님)의 신장은 58라타나(32m)이고, 32 특상은 황금기둥과 같이 빛난다. 흙벽, 창, 벽, 나무, 산 바위 등은 그 (빠두못따라 부처님)에게는 12요자나(132km) 정도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당시의 수명은 10만년인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고훬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vs. 30-31]_빠두못따라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고혜의 바다]를 건너게 하고, 모든 의심을 단절하고, 불덩이처럼 타오른 후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반열반에 든다. 빠두못따라 부처님이자 승자는 난다숲속 사원(nanda-ārāma)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거기에 그 부처님의 훌륭한 답이 세워졌는데, 높이가 12요자나(132km)이다.<계속>

*주석1: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지 매우 '큰 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2: 원문의 계속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 되어있는데, 끈단냐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동화사의 금당선원과 옹호문

전일주 / 문학박사



1. 금당선원(金堂禪院)의 편액과 주련

祖意如空不是空(조의여공불시공)
 眞機爭墮有無功(진기쟁타유무공)
 三賢尚未明斯旨(삼현상미명사지)
 十聖那能達此宗(십성나능달차종)
 透網金鱗猶滯水(투망금린유체수)
 回途石馬出紗籠(회투석마출사롱)
 慇懃爲說西來意(은근위설서래의)
 莫問西來及與東(막문서래급여동)
 撒手到家人不識(살수도가인불식)

조사의 뜻 공한 것 같지만 공이 아니니
 참된 기를 어찌 공력 있고 없음을 떨어지랴.
 삼현도 오히려 이 뜻을 밝히지 못했는데
 십성인들 어찌 이 종지를 통달했겠는가?
 그물을 통과한 금고기는 오히려 물에 막히나
 길 돌이킨 돌말은 비단에 바구니를 벗어났네.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은근히 설하노니
 서쪽에서 왔건 동쪽에서 왔건 묻지 말라.
 손을 놓고 집에 돌아와도 아는 사람 없으리.

금당선원은 설법전 뒤쪽 언덕 위에 위치한 동화사의 선원이다. 진표(眞表) 율사로부터 영심(永心) 대사에게 전해진 팔간자(八箇子)를 심지(心地) 대사가 받은 뒤 팔공산에 와서 이를 던져 떨어진 곳에 절을 지으니, 이곳이 바로 동화사 북쪽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이 우물터가 바로 금당선원 자리이다.

금당선원은 한국불교의 선맥(禪脈)을 잇는 참선도량인데, 수많은 도인이 배출된 곳으로 유명하다. 선원 앞마당에 보물 제248





호 삼층석탑 2기와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인 수마제전(須摩提殿)이 있다. 선원 앞 주위에는 동화사사적비와 인악대사비 등 여러 금석문이 있어 동화사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편액과 주련의 글씨는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鏡峰, 1892~1982)스님이 쓴 것이며, 글씨체는 행초체(行草體)이다. 스님은 경남 밀양 출신인데, 한시·시조·서에 분야에 뛰어났다.

주련 내용에서 3구의 '삼현(三賢)'은 대승불교에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의 수행 지위에 있는 모든 보살을 일컫는 말이며, 4구의 '십성(十聖)'은 곧 십지보살(十地菩薩)이라고 하는데, 십지는 곧 환희지(歡喜地)·이구지(離垢地)·발광지(發光地)·염혜지(焰慧地)·난승지(難勝地)·현

전지(現前地)·원행지(遠行地)·부동지(不動地)·선혜지(善慧地)·법운지(法雲地)이다.

이 글의 출전은 『전등록』인데, 동안(同安) 상찰선사(常察禪師)의 계승인 『십현담(十玄談)·조의(祖意)』에 나온다.

2. 옹호문(擁護門)의 편액과 주련

擁護聖衆滿虛空(옹호성중만허공)
 都在毫光一道中(도재호광일도중)
 信受佛語常擁護(신수불어상옹호)
 奉行經典永流通(봉행경전영유통)

옹호하시는 성스런 무리들이 허공에 가득하니, 모두가 부처님 지혜의 한 가지 도리 중에 있도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서 항상 보호하고, 경전을 받들어 행하여 길이 유통케 하시네.

동화사의 옹호문은 불법(佛法)을 호위하

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모셔둔 곳이다. 예전에 있던 옹호문은 퇴락하여 중수하였고, 사천왕상을 그림으로 그려 모셔둔 것도 중수할 때 조각상으로 모셨다.

주련의 글귀는 《석문의범(釋門儀範)·신중작법(神衆作法)·가영(歌詠)》에 나오는 내용이다. 편액은 해서체이며, 주련은 유려한



행서체로서 세로획은 가늘고 가로획은 굵게 쓴 동국진체풍(東國眞體風)이다. 예전의 주련에는 '숭정기원후 재기미십이월(崇禎紀元後 再己未十二月)(1739년(영조 15년)) 굉열(宏悅)' 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로부터 한국의 사찰에서는 일주문(一柱門)과 본당 사이에 천왕문을 세워, 그림으로 또는 나무로 깎아 만든 사천왕의 조각(彫像)을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은 보통 검(劍 : 持國天), 비파(琵琶 : 多聞天), 탑(塔 : 廣目天), 용(龍 : 增長天)을 들고 있다.

사천왕은 동쪽의 지국천왕(持國天王), 남쪽의 증장천왕(增長天王), 서쪽의 광목천왕(廣目天王), 북쪽의 다문천왕(多聞天王)을 말한다. 사대천왕(四大天王)·호세사천왕(護世四天王)이라고도 한다. 육계육천(欲界六天)의 최하위를 차지한다. 수미산 정상의 중앙부에 있는 제석천(帝釋天)을 섬기며, 불법 뿐만 아니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는 호법신이다. 경남 양산 통도사(通度寺)의 목조 사천왕상, 경북 경주 석굴암의 석조 사천왕상이 유명하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 연다

2560년 전인 BC 563년 음력 4월 8일 해뜰 무렵,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뼈를 깎는 고통에 굴하지 않고 고행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각(正覺)을 이루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 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
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이 외침은 장차 고통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 즉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중생들을

위하여 걸림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선언은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상대로 법을 설함으로서 시작하였고, 이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부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붓다’(Buddha)를 따서 만들었으며, 깨달은 사람을 뜻한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며, 부처님이 체험을 통하여 증득한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또한 배워서 알아야 하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실천 수행해야 한다. 깊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이는 마침내 생사의

피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불교 최고의 이상인 열반(涅槃)을 성취한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내려 오셨다. 그 분이 나신 곳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길가의 동산 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 가신 우리 스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연민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하여 수행하라”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또 자기가 죽은 뒤에 “교주(教主)의 말은 끝났다. 우리의 교주는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내가 설한 교법(教法)과 계율이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마침내 쿠시나가라의 숲에 이르렀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심한 식중독을 일으켜 쇠진하였다. 부처님이 “나는 피로하구나. 이 두 사라수(沙羅樹) 사이에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게 자리를 깔도록 하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운명이 가까웠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슬퍼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모든 것은 곧 헤어지지 않으면 아니되느니라. 제자들이여, 그 대들에게 말하리라. 제행(諸行)은 필히 멀하

여 없어지는 무상법(無常法)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은 물론 ‘참 나’를 찾겠다는 분발심을 내고 부처님의 중생구제 노력을 세위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생의 병의 종류에 맞춰 약을 주셨던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의 중생의 고통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와 정신적 혼돈, 그리고 분단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교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으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 불자가 이 시대에 처방해야 할 과제들인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은 불탄일(佛誕日) 또는 욕불일(浴佛日)이라고도 하나, 민간에서는 흔히 초파일이라고 한다. 석가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가에서 하던 축의행사(祝儀行事)였으나 불교가 민중 속에 전파됨에 따라서 불교 의식도 차츰 민속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신라는 여러 가지 불교 행사가 성했는데, 무열왕과 김유신 장군이 불교를 호국의 바탕으로 참여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불교행사는 이전부터 전해오던 세시행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병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팔관회(八關會)는 불교행사가 신라의 세시풍속으로 승화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월 초파일은 불도의 행사가 신라의 호국불교로 승화된 이래 후삼국을 거쳐서 고려조에 이르는 동안 우리의 민속과 동화되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의 백제와 고구려 본기에는 불도의 행사가 세시의 행사로 거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신라본기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을 팔관회로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고려사》에 따르면, 왕성(王城)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정월 대보름에는 14일, 15일 이틀간 을 저녁에는 연등(燃燈)을 하던 풍속이 있었으나 최이가 4월 8일로 옮겨서 하게 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월 초파일은, 불교의 축의행사로 전래되었다가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두운 세상에 환한 불 밝히시다

부처님오신날에 다는 연등(燃燈)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무명(無明)의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때문에 등을 밝힐 때는 맑고 지극한 신심으로 임해야 한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자비를 기쁨으로 삼으며, 맑

은 생각을 그릇으로 하고 공덕을 빛으로 하여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앤다’고 했다.

연등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연등을 공양하는 의미는 번뇌와 무지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현우경 빈녀난타품을 보면 부처님이 영취산에 계실 때의 일로 밤을 밝힌 다른 등들은 다 꺼졌다. 하지만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지극한 서원과 정성으로 밝힌 등불만이 끝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을 본 부처님께서 “이 여인은 등불 공양의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 부처님 당시부터 등공양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파일 행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제등행렬. 제등 행사는 신라 때부터 풍년과 국가 발전을 기원하던 예술제 성격의 연등회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연등 놀이를 하는 초파일 저녁을 등석(燈夕)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야간의 통행을 허락하며 서울 장안의 사람들은 산기슭에 올라가 달아놓은 등을 구경하거나 제등행렬을 하면서 밤새도록 즐겼다. 또 등간에 매달린 등 줄 사이에 숫과 사기 파편을 넣은 주머니를 매달고 불을 붙여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회전등, 주마등이라고 해서 등 안쪽에 호랑이, 사슴, 노루 등의 모양으로 자른 종이

를 끼워 넣어 등 안에서 회전하게 함으로써 그림자를 감상하기도 했다. 초파일 등은 각종 기록이나 민요 등을 통해 볼 때 그 종류가 40여종이나 된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석류등 수박등 마늘등을,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거북등 학등 등을 달았다.

관욕으로 세속의 인연을 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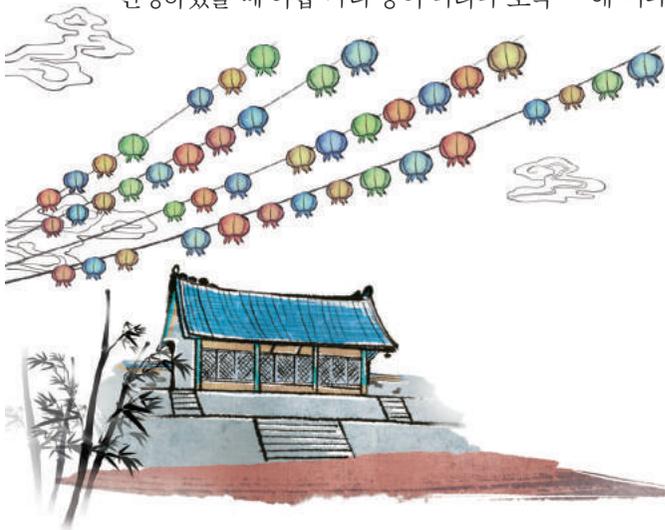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사찰에서 꼭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 관욕(灌浴)은 다겁생래(多劫生來)로 쌓아온 영가(靈駕)의 번뇌를 청정케 해주려는 의식으로,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본다면 자신을 규정하려는 모든 것은 번뇌일 수밖에 없으므로 삼보의 가지력에 의해 온갖 세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케 해주려는 것이다.

관욕이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뜻으로 관불(灌佛), 욕불(浴佛), 관정(灌頂)이라고도 한다. 관욕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홉 마리 용이 나타나 오색

향수로 부처님을 씻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오늘날에도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관욕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탐욕의 때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하며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세우며 봉행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관욕을 통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을 찾아가 정성껏 만든 등을 밝히고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誓願)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있다. 또 각 사찰에서는 삼보의 가지력에 의해 온갖 세속 인연을 씻고 청정한 본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관욕을 실시하는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고 있다.



법왕사 소식

법왕 거사림 첫 법회 4월 14일에 봉행



법왕사 거사림 첫 법회가 지난 4월 14일 대적광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엔 창립한 거사림에는 모두 15분의 거사님들이 동참하였으며 앞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법회를 봉행합니다. 거사림은 남자 불자들의 신행모임으로 거사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편 이번 거사림 창립을 기념하여 단체복으로 조끼를 주문 제작하였습니다.(회원가입 환영합니다.)

제47회 법왕사 경로잔치 열려



법왕사에서는 오는 5월 7일 토요일 복지관 전시실에서 지역 어르신 1천 여분을 초청하여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고 흥겨운 잔치 한 마당을 베푸는 경로잔치를 엽니다. 법왕사 개원 이래 매년 두 차례씩 개최해 온 경로잔치는 수성구와 남구 등 법왕사 주변 지역 어르신들의 신나는 잔치로 특히 이번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후원하여 더욱 푸짐하고 알찬 잔치가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널리 알려져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후원품, 경품 접수받습니다.)

제31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지난 4월 15일 제31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하였습니다. 이번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49일만인 6월 2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를 천도,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사 불자 주호영 국회의원 4선 성공



법왕사 신도인 주호영 국회의원이 4선에 성공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 수성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 상대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4선에 성공했습니다. 주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불보살님의 가피와 법왕사 불자들의 뜨거운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도 불자들의 입장과 권익 대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적광전 인등 불사 회향



복지관 4층 대적광전 불단 옆으로 배치한 인등 불사

가 회향하였습니다. 인등은 불자들이 소원을 담아 1년 365일 불을 밝히는 것으로 주불단 좌우로 배치하여 은은한 빛으로 도량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인등 밝히기를 희망하는 불자들은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회향을 계기로 대적광전은 더욱 여법한 불전으로 장엄하였으며 올해 안에 삼존불을 모시면 완벽한 법당이 될 것입니다.

대적광전 전면 불단 공사 회향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전면 불단 공사가 회향하였습니다. 주불단 단집을 시작으로 불단 아래 수미단 장엄

대적광전 천정 상들리에 및 CCTV 설치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천정 상들리에와 CCTV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들리에에는 법당을 더욱 품위 있는 공간으로 장식하면서 카메라는 법당 내부의 상황을 종무소에서도 환히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법왕사 신행단체 법회 일정

| 단체명 | 일시 |
|------|------------------|
| 신장기도 |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삼일간 |
| 신장회 | 매월 음력 10일 |
| 지장회 | 매월 음력 18일 |
| 관음회 | 매월 음력 24일 |
| 합창단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 산사회 | 매월 음력 16일 |
| 인등회 | 매월 보름 |
| 거사림 |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 7시 |
| 천일기도 | 음력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

새로 오신 법우님

김영식 김영호 정백나 김수자 박진수
박중화 채규호 박찬식 박혁범 천 인
박찬식 박혁범 심재명

법왕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보도움 주신 분

효범스님 200부 박재관 200부
효상스님 300부 원광스님 300부
자옥스님 3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과일공양 올리신 분

김수자(백고좌 입재) 강정현 김수자(백고좌 초재)

◎ 공양미 올리신 분

김수자 박인철 강유미 김옥희 성 윤
정민수 김수곤 김선우 신현채 심영호
김종구 이상배 심보현

◎ 물품보시 올리신 분

양해문(공나물 1시루) 채희재(연잎)
심상국(표고버섯 1box) 고명환(수산물)

◎ 상들리에 불사 올리신 분

정근순 이승현 백대행심

◎ 떡공양 올리신 분

신동애 김정자 이세정 신정순 나영욱
백해영 권보형 권태일 김잠분 최재훈
정국영 김선우 박찬용 이선영 이순학

문규담 정영미 김현주 이해수 김현주(49재)
이승민 신웅균 이용웅 양영갑 양문갑
양문갑(지장재일) 양영갑(지장재일)
양문갑(열반재일) 양영갑(열반재일)

◎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이광진 서명진 이호우

◎ 법보시 올리신 분

김경희

◎ 삼사순례 공양 올리신 분

대중공양 : 성윤
떡 : 김수자
도시락일체 : 구실상화
차량운행비 : 산신회장 이정현
음료수 : 김종황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일년등 올리신 분

178 홍분희 179 강선옥 180 신지원 181 김영호
182 니영연 183 니영욱 184 노성왕 185 금건수
186 김도형 187 심보현 188 최성락 189 김의목
190 정하삼 191 박말순 192 성점순 193 장철영
194 박익건 195 박종출 196 구승우 197 임귀연
198 홍준영 199 배효열 200 배재민 201 조명희
202 남현우 203 김봉원 204 권영효 205 강대각심
206 전태일 207 최종식 208 이경상 209 최홍규
210 이재영 211 이승업 212 남광현 213 정재만
214 심상국 215 석현진 217 문국연 218 백대행심
219 박무착심 220 정연국 221 강점구 222 최옥남
223 신명균 224 박경영 225 김호연 226 이세정
227 이길우 228 백경원 229 최영곤 230 김임태
231 조복래 232 최지혜 233 이원석 234 이인수
235 정택상 236 이춘섭 237 김상훈 238 최재승

239 장성용 240 박수식 241 서윤수 242 김수자
 243 유희택 244 이가운 245 안주선 246 박팔만
 247 서복만 248 정 진 249 권진규 250 정태호
 251 강상조 252 임충성 253 임채록 254 이영동
 255 전병환 256 전일주 257 김수하 258 최제운
 259 최성곤 260 전경식 261 이종수 262 박순지
 263 이교금 264 권우량 265 박성용 267 박봉순
 268 신현국 269 신현중 270 이태호 271 조영숙
 272 권태모 273 계해정 274 홍진호 275 김영국
 276 장성차 277 김명환 278 박길용 279 최영도
 280 유희연 281 김진성 282 정순천 283 박중화
 284 강경훈 285 안병목 286 조준형 287 김태익
 288 채규호 289 박찬식 290 박혁범 291 신현중
 292 정기태 293 손대천 294 윤귀웅 295 황광덕
 296 이청차 297 문원미 298 심재명 299 정민경
 300 오광진 301 정효교 302 김영원 303 김옥출
 304 한금복 305 김현태 306 김덕년

◎ 단청등 올린신 분

신의내과(신현수) YM인테리어부동산(강유미)
 대경정밀(박동근) 청송약수삼계탕(민병철)
 산재수학학원(강현성서경아) 임명환 진영규
 길보자동차(주)보광직물 청구도시락(권오섭)

◎ 사업등(1) 올린신 분

신진정밀(김기수) (주)동원토건(양창구)
 해안불교미술원(장호식) 창신중기(우재균,우승복)
 전주맛집(전주수) 와우노래방(박종률)
 계해정한의원(계해정) 남도운수(신재호)
 이진훈(수성구청장)

◎ 사업등(2) 올린신 분

손말두(광진크레인) 지혜림(엘레강스)
 배해동(부창떡집) 권오암 이법일
 권오성(주)우성건설 김영웅 박충근(이화꽃집)
 신영숙(영꽃집) 강영도(다산미디어)

이용옥(파워전기) 김수하

◎ 삼신불 불사 올린신 분

안병목 이종현 안재찬 박경경 안세현 김태익
 안선희 김성민 김현준 조준형 안현주 조명기
 조수정

◎ 범종불사 올린신 분

김익환 박경택

◎ 대적광전 인등 올린신 분

11 최상민 12 육민환 13 김영식 14 이현우
 15 김경희 16 최윤석 17 이영석 18 김희동
 19 정성향 20 김태현 21 김민준 22 천최대일
 23 김영자 24 최준영 25 임헌지 26 최서임
 27 최준혁 28 최우석 29 이기준 30 장규현
 31 권관영옥 32 천김중교 33 홍분희 34 권오국
 35 최옥남 36 전창진 37 오견덕화 38 임명환
 39 김영순 40 임정구 41 임재영 42 제갈욱
 43 우연희 44 제갈선 45 제갈란 46 제갈탁
 47 이정상 48 전옥남 49 이옥진 50 이도윤
 51 이나경 52 이승엽 53 이승아 54 천이무장
 55 이정학도 56 천병병영 57 천김상순
 58 천이준호 59 신창진 60 권순득 61 신정수
 62 신지원 63 권중오 64 송정숙 65 권나연
 66 권기정 67 권오삼 68 민기주 69 권지용
 70 권민중 71 신재호 72 김현주 73 신현태
 74 신현욱 75 신현중 76 천이화순 77 박봉희
 78 권순예 79 이진영 80 이도원 81 홍승환
 82 임은재 83 심재용 84 박지원 85 박세현
 86 송규수 87 차민교 88 김진아 89 홍재호
 90 전보라 91 조동선 92 강정현 93 장원업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 하신 분

3507 정진우(관세음보살) 3508 박홍렬 (비로자나)
 3509 손금자(약사여래불) 3510 박영균(비로자나)

3511 박초림(관세음보살) 3512 서미희(석가모니불)
3513 최홍규(관세음보살) 3514 이경자(약사여래불)
3515 조영숙(관세음보살)

◎ 꽃등 올리신 분

40 배해동 41 금태운 42 정창진 43 우병철
45 박말분 46 박희수 47 박종거 48 박홍렬
49 이현자 50 정영선 51 강유미 52 박두리
53 권중환 54 천 인 55 이효조 56 임석빈
57 한정수 58 김순자 59 신종호 60 박영승
61 김하균 62 이정철 63 박정순 64 이상봉
65 심명오 66 장우성 67 오규동 68 이희로
69 윤경진 70 이승현 71 조준승 72 정연수
73 조병완 74 권춘자 75 박이자 76 정도환
77 신현태 78 백성현 79 김학열 80 이성용
81 송지은 82 김경규 83 이진철 84 김상수
85 문국연

◎ 일년등 올리신 분

307 김원구 308 김승열 309 육민환 310 육무환
311 이상호 312 김상원 314 김만기 315 김승우
316 양영갑 317 이정숙 318 장승환 319 윤병재
320 손국본 321 전애란 322 양문갑 323 권상태
324 황정희 325 이영수 326 이선봉 327 고재등
328 김재현 329 황하기 330 김부겸 331 권오삼
332 김찬호 333 김정숙 334 권민기 335 박수영
336 전진양 337 방형욱 338 임옥매 339 신종석
340 박종욱 341 정연국 342 정연직 343 정연목
344 정연석 345 류준하 346 정연미 347 박태철
348 김우덕 349 정무시 350 김태우 351 이철우
352 정근순 353 홍현덕 354 정경순 355 이동재
356 김경배 357 윤금숙 358 이강복 359 장세훈
358 오상양 360 박동숙

◎ 부처님 복장물 불사하신 분

박영균 박초림 최두환 정재만

정정우 정서윤 정지옥 은강씨일체
은강학근 은강학성 은강무완 은김호이
은황순희 은김명암 은김운이 은김재운
은김서운 은김남이 은이명옥 은강호영
은강필수 은서예배 은강학중

왕생극락하옵소서

- ◆ 은이기범 영가의 기제사가 4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은김남옥 영가의 백제가 4월 7일에 있었습니다.
- ◆ 은민해순 영가의 기제사가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은최병구 최경문 장운선 영가의 기제사가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은김진태 김현태 영가의 기제사가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은정준식 영가의 기제사가 4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은박순용 영가의 기제사가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은진은지 영가의 기제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은고세옥 영가의 기제사가 4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은윤동규 영가의 막제가 4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 ♥ 박동근 황미선(합창단 단장) 법우님의 장남 준범군의 결혼식이 5월 1일에 있었습니다.

해오름 요양원 소식



최영도 거사 봉사단 공연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이 흥겨우신지 아시는 노래가 나오면 함께 흥얼거리시고 박수를 치시면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감춰 두었던 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자주 마련해야겠습니다.



네일아트 프로그램

네일아트 봉사자께서 어르신들의 손을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부끄러우신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알록달록 빨갛게 매니큐어를 칠 한 손을 자랑하시네요. 어때요? 예쁘게 가꾼 손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한층 더 젊어지셨지요?



웃음치료활동

이달에도 어김없이 비구니 스님과 웃음치료 봉사자들이 찾아와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얼굴에 미소와 웃음을 짓게 하려고 얼굴에 일그러진 분장도 마다하지 않으시네요. 어르신들도 그 모습이 재미있는지 아이처럼 즐거워하십니다.



봄맞이 경내 산책!

봄을 맞이하여 담당 요양보호사와 함께 어르신들이 산책을 나왔네요. 밖으로 나와 떨어지는 빗꽃 잎 사이로 따뜻한 햇살을 느끼시면서 어르신들도 계절의 변화를 한껏 즐기고 계십니다. 그 모습에 봉사자들에게 동행한 담당 요양보호사도 덩달아 웃어보입니다.

-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이재빈(웃음치료) 이영희(네일아트) 최주은(음악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워드상담심리센터(미술심리치료) 오카리나공연(더오카리나)
써포터즈(야외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이미용(무궁화미용학원)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03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 | | |
|---------|---------|-----------|
| 강선옥 5만원 | 김봉숙 5천원 | 김진현 5만원 |
| 강선희 1만원 | 김성의 1만원 | 김창안 1만원 |
| 강성채 2만원 | 김성자 1만원 | 김향희 1만원 |
| 강소남 5천원 | 김수곤 5천원 | 김형택 2만원 |
| 강심규 5천원 | 김수라 1만원 | 김혜자 5천원 |
| 강영도 2만원 | 김수원 5천원 | 남기웅 1만원 |
| 강유미 1만원 | 김수윤 5천원 | 노귀자 5천원 |
| 고연숙 1만원 | 김수자 1만원 | 노수정 1만원 |
| 구정대 2만원 | 김순연 5천원 | 도화순 5천원 |
| 권계화 1만원 | 김순태 1만원 | 류윤만 1만원 |
| 권명진 1만원 | 김영희 5천원 | 문정애 2만원 |
| 권수미 5천원 | 김옥희 5천원 | 박경자 5천원 |
| 권숙자 1만원 | 김외환 1만원 | 박귀분 1만원 |
| 권순득 1만원 | 김용태 1만원 | 박남희 3만원 |
| 권순미 1만원 | 김우영 1만원 | 박대희 5천원 |
| 권순영 1만원 | 김원형 9만원 | 박동규 5천원 |
| 권순철 1만원 | 김유진 1만원 | 박성숙 5천원 |
| 권영철 5천원 | 김은주 1만원 | 박성숙 5천원 |
| 권오국 1만원 | 김의목 1만원 | 박성용 5천원 |
| 권춘자 3만원 | 김임태 5천원 | 박성은 5천원 |
| 금명섭 5천원 | 김정규 5천원 | 박성찬 1만원 |
| 김경자 1만원 | 김정숙 5천원 | 박성후 2만원 |
| 김경호 1만원 | 김정순 3만원 | 박수진 1만원 |
| 김기덕 2만원 | 김정옥 2만원 | 박순남 5천원 |
| 김기수 2만원 | 김정임 1만원 | 박순영 5천원 |
| 김대현 5천원 | 김정자 5천원 | 박영균 1만원 |
| 김만기 5천원 | 김중곤 1만원 | 박원태 1만5천원 |
| 김명옥 1만원 | 김진성 1만원 | 박인철 1만원 |
| 김미자 1만원 | 김진현 1만원 | 박정목 1만원 |
| 김미정 1만원 | 김진현 1만원 | 박종규 1만원 |
| 김민주 1만원 | 김진현 5천원 | 박치민 5천원 |

| | | |
|---------|-----------|----------|
| 박태숙 5천원 | 엄세비 1만원 | 이중희 5천원 |
| 박태숙 5천원 | 여택동 5천원 | 이준우 5천원 |
| 박희조 5천원 | 염보라 1만원 | 이채원 1만원 |
| 반룡사 1만원 | 염홍식 6만원 | 이하예진 5천원 |
| 배소춘 5천원 | 오난옥 5천원 | 이현기 1만원 |
| 배수현 2만원 | 용마관음사 30원 | 이현옥 1만원 |
| 배하수 1만원 | 우포정사 1만원 | 이호동 5천원 |
| 사공관 2만원 | 유명옥 1만원 | 이호조 1만원 |
| 서유희 1만원 | 윤명숙 1만원 | 임상덕 1만원 |
| 서정희 1만원 | 윤윤근 1만원 | 임예숙 1만원 |
| 서치경 1만원 | 윤정연 1만원 | 장성규 5천원 |
| 석중순 1만원 | 이경자 1만원 | 장재혁 5천원 |
| 성인자 1만원 | 이남희 1만원 | 장지연 1만원 |
| 손복남 1만원 | 이명숙 1만원 | 장찬규 5천원 |
| 손수연 1만원 | 이명희 1만원 | 장호주 5천원 |
| 송민경 1만원 | 이병노 1만원 | 정경석 2만원 |
| 송정숙 5천원 | 이병희 1만원 | 정경숙 1만원 |
| 시명숙 1만원 | 이복희 1만원 | 정명선 2만원 |
| 신구자 5천원 | 이석규 5만원 | 정무시 1만원 |
| 신돈식 1만원 | 이성자 1만원 | 정민경 1만원 |
| 신세호 1만원 | 이성환 5천원 | 정병태 1만원 |
| 신임선 5천원 | 이승미 1만원 | 정순옥 5천원 |
| 신진무 1만원 | 이승환 5천원 | 정시영 1만원 |
| 신진숙 1만원 | 이용옥 1만원 | 정연이 5천원 |
| 신중호 5천원 | 이유태 1만원 | 정영자 1만원 |
| 신화식 1만원 | 이인순 5천원 | 정옥선 1만원 |
| 심규암 5천원 | 이재봉 5천원 | 정옥수 5천원 |
| 심중순 5천원 | 이전희 5천원 | 정인철 2만원 |
| 안경순 1만원 | 이정숙 1만원 | 정태교 5천원 |
| 안명희 1만원 | 이정연 5천원 | 정혜숙 1만원 |
| 안희선 1만원 | 이정옥 1만원 | 정활수 3만원 |
| 양나영 5천원 | 이정화 1만원 | 조규인 1만원 |
| 양봉훈 1만원 | 이정희 3만원 | 조성자 5천원 |
| 양혜진 1만원 | 이정희 5천원 | 조영석 1만원 |

| | | |
|---------|---------|---------|
| 조영숙 5천원 | 최두선 1만원 | 허유미 5천원 |
| 조인성 5천원 | 최분규 1만원 | 현종열 1만원 |
| 조일훈 1만원 | 최승임 1만원 | 홍유식 5천원 |
| 조정자 5천원 | 최영희 1만원 | 황미선 2만원 |
| 조정화 1만원 | 최윤희 5천원 | 황준원 1만원 |
| 진봉희 1만원 | 최정수 2만원 | 황지영 1만원 |
| 채수인 5천원 | 최창숙 5천원 | 황학영 1만원 |
| 채옥연 5천원 | 한규매 1만원 | |
| 최경순 1만원 | 한희록 1만원 | |

총합계 : 2,375,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이강복 3만원 강미경 1만원
김진수 3만원(현금)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이애란 김필남

◎ 지출내역

| | |
|----------|--------------|
| 우편물 발송비 | : 11,130원 |
| CMS수수료 | : 88,000원 |
| 부식 재료구입비 | : 2,310,000원 |
| 간식 구입비 | : 184,800원 |

총지출 : 2,593,93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시 분

이덕순 어르신 보호자: 비요비타 1박스, 요플레 50개, 박카스 1박스, 딸기, 꿀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바나나 2줄
한석근 어르신 보호자: 요구르트 45개, 요플레 12개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박카스 2박스
이재희 어르신 보호자: 비타500 1박스
이영석 : 휴지 10롤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새로 입사하신 분
이애란 간호조무사

신규 입소 어르신
정판임 어르신 이덕순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서정희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
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양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가창 부처님마을 오시는 길

법양사에서는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115번지 일대에 부지 4천 5백여평을 마련해 제2해오름 요양원으로 부처님마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부처님마을'은 주지 실상스님께서 세운 대서원인 '세계최대 종합불교복지도량'을 완성하는 불사로 현재 부지조성을 진행 중이며 이 공사가 끝나는데로 조만간 시설 설계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현재의 요양원 부족 현상을 극복할 계획입니다. 불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대구에서 가실 신도께서는 가창을 지나 팔조령 터널을 지나기 직전, 옛 팔조령을 넘어가는 길로 접어들어 5백m가량 가시면 오른쪽에 부처님마을이 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후원

법왕사 제47회 일천명 초청 경로잔치

◎ 일시 : 5월 7일(토)

◎ 장소 : 복지관 전시실

1부 경로 법 회 : 오전 11시 ~ 12시

2부 점 심 공 양 : 오후 12시 ~ 1시

3부 축하한마당 : 오후 1시 ~ 3시

법왕사에서는 오는 5월 7일(토) 법왕사 복지관 전시실에서 제47회 일천명 초청 경로잔치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경로법회를 시작으로 12시 점심공양, 오후 1시 축하 한마당 순서로 펼쳐지는 이번 경로잔치는 특별히 전기공사협회에서 후원하여 예년에 비해 더욱 푸짐한 잔칫상을 차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국민 고품격 전력산업의 리더

회원 중심의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대구지역 570개사 등 전국 14,000여 전기공사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전기공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공기술의 향상 및 국가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기공사사업법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단체입니다.

잠재된 위험성과 특수성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기공사를 개인가정집에서부터 각종 산업현장의 전기설비를 완벽한 시공을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 전기설비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으로 국가전력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 정안식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89, 4층(신천동) ☎053)353-9001~2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불사 모연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법당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大寂光殿) 장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 웅장한 단계를 완공하였고 현재 불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삼신불 봉안불사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높이 9m에 달하는 웅장한 대적광전에 주석하실 삼신불 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부처님 복장물 접수안내

| | | |
|----------------------|---------------------------|------|
| 오보(다섯가지 보배) | 거부 장사가 되길 원하는 불자 | 각자지참 |
| 오곡(쌀, 보리, 대두, 조, 기장) | 음식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불자 | 2만원 |
| 오사(다섯가지 실) | 좋은 인연을 가지길 원하는 불자 | 2만원 |
| 오향(다섯가지 향) | 몸에서 법신, 법계의 향내가 나길 원하는 불자 | 2만원 |
| 오화(다섯가지 꽃) | 아름답기를 원하는 불자 | 2만원 |
| 오금(다섯가지 비단) | 좋은 옷이 생기길 원하는 불자 | 2만원 |
| 오경(다섯가지 거울) | 심신이 깨끗하길 원하는 불자 | 2만원 |
| 오약(다섯가지 약) | 번뇌를 멀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불자 | 2만원 |
| 오필(다섯가지 붓) | 학문이 수승하길 원하는 불자 | 2만원 |
| 오병(다섯가지 병) | 집안을 장식하길 원하는 불자 | 2만원 |
| 다라니 | 권력이나 진급을 원하는 불자 | 2만원 |
| 경면주사 | 삿된 귀신이 침노하지 않기를 원하는 불자 | 2만원 |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초기원형불교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 개설반 | 법사 | 주제 | 시간 |
|-----|------|----------------------|----------------|
| 초급반 | 주지스님 |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중급반 | 영일스님 | 초기원형불교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 야간반 | 주지스님 | 지장경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 특강반 | 외부법사 |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 추후 공고 |
| 아함반 | 연담스님 |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 야간반 | 관일스님 | 법구경 특강 | 저녁 7시 ~ 8시 30분 |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